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제기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새해엔 평화를 누리십시오



“자연과 하나 돼야” 조계종 종정 신년 법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지난 27일 발표한 임인년(壬寅年) 신년 법어에서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고 하나 돼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질병의 공포와 고통은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며 “근원적인 해결책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하는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제 스님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가르침으로 종교와 이념, 성별과 세대, 계층과 빈부를 초월해 모두가 보살심(菩薩心)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하고 세상이 화평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것은 달라도 나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겠습니까? 올 일 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맞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다른 모든 것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영과 육의 건강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뜻은 다른 말로 하면, ‘올 한 해 동안 평화롭게 사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뭐니까? 다툼이 없다고 해서 평화는 아닙니다. 부부가 일 년 내내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의 마음 안에 평화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관심의 상태로까지 가면 그것은 다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웅다웅 싸울 때는 그래도 개선될 희망이라도 있지만 아예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X를 그어 놓으면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서, 기가 막힌 경치 한가운데 산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낙원은 존재치 않습니다. 하늘 앞에만 갈 때에만 비로소 낙원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

아갈 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참 평화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평화는 아닐 겁니다.

못난 사람은 평생 못난 것만 붙들고 징징거리면서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어두움을 보질 않습니다. 하늘님으로부터 내려온 평화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쁨의 사람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평화 가운데에 살려고 할 때마다 평화를 깨려고 우리를 붙들고 늘어질 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분명히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올 일 년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놈의 종이 돼서 나도 모르게 올 일 년 동안을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끌려 다니는 삶. 이것은 종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자유인입니다. 위대한 신하느님의 아들, 딸이요 그분의 상속을 보장받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미

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나를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비로소 자유인이 되고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늘 위협하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미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돼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미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교만과 허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는 못된 내 입술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쾌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평화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때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내 평화를 깨는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이 오고 고통의 십자가가 올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모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비록 험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에서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 김용렬 신부 -

“낡은 전통 벗어야” 한교총 신년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지난 27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개혁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 됐다.”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여전히 교회는 필요한가, 진정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를 묻고 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굳어진 습관과 낡은 전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악법의 제정과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평가는 더욱 냉정해졌고, 영향력 또한 감소하게 됐다.”며 “복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 가운데 자기 갱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마음과 한뜻으로 선교와 교육, 봉사 의 전열을 재정비해 세상의 빛이요,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세계평화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